

삼보사찰 천리순례 자자회...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었다”

“이번 순례를 통해 불교 문화와 더불어 불법승 삼보를 심도 깊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힘든 여정을 지나며 불심도 보다 확고히 다졌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구요. 이번에 부처님께 보현 하나 들었고 앞으로 살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순례의 기억을 꺼내 보겠다고 합니다. 이제와 돌아보니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해주신 분들이나 그 길을 걸어온 우리나 모두가 부처님이었습니다(6조 대표 정혜림)”

“스님으로서의 위의를 지키지 못해 우선 참회합니다. 순례를 할 때는 가사를 수하고 묵언 정진하는 것이 원칙인데 휴식 시간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 정진 대중이 보기에 좋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욱 주의하지는 대중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점은 조원들을 비롯한 대중의 힘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개중에는 오랫동안 끔찍했던 고민을 이곳에서 만난 도반의 지혜로 해결한 스님도 있었고, 타 종단 사찰을 우리 종단으로 등록한 후 내면의 고민을 털어놓은 스님도 있었습니다. 좋았던 점을 빛 삼아 다음 인도 성지순례 때는 우리 조 전원 모두가 다시 함께하기로 결의했습니다(3조 대표 범원스님)”

“지난해 자비순례에 참가한 한居士님이 걸으며 염송하는 것이 좋아 이번 천리순례에도 참여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염불하며 걷는 것이 좋아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걷는 것이 제일 싫다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걷기’를 극

8개 조별 자자회 결과 발표 대표자 나서 잘못 참회하고 18일 간 순례 소회 나누며 신심과 우애 돈독히 다져

한까지 해보자 하는 의지로 참여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걷는 것은 싫다고 합니다(하하). 그렇지만 행복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내린 것 같다고 해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했습니다(8조 대표 이재완)”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인 10월17일, 마지막 불보종찰인 통도사 입성을 하루 앞두고 천리순례 자자회가 울주 상북면에서 열렸다. 지난 17일 동안 송광사에서 해인사를 거쳐 울산으로 넘어온 천리순례단은 이날 그간의 잘못을 참회하고 순례 소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자회 하루 전날 이미 8개 조가 자자 시간을 갖고 조별 생각을 정리해 온 만큼 참가 대중의 의견을 간략히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우바새와 우바이가 속한 조부터 했다. 재가자 중심의 그룹들은 순례 전 마음가짐과 순례 이후의 달라짐 점을 이야기하며 신심이 낫던 순간과 아쉬움 가득한 순간들을 기억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는 8조를 대표해 이재완 씨는 “조원들 대부분 삼보사찰 순례를 통해 신심이 고취되고 서로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17일차인 10월17일, 마지막 불보종찰인 통도사 입성을 하루 앞두고 천리순례 자자회가 울주 상북면에서 열렸다.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a.com

간의 결속력을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가 걸었던 이 순례길이 불자들 뿐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함께할 수 있는 길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말했다.

7조를 대표해 발표한 장운정 씨는 “큰 스님들의 자비로운 행동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순례단을 성심으로 지원한 운영팀과 힘든 순간마다 함께 해준 도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매일 회의를 통해 서로에게 서운했던 점과 고마웠던 점을 공유하며 불편을 해소하기도 했다던 7조는 인도까지 함께하

는 막내 조원의 말에 다 같이 웃음꽃을 피웠다고도 전했다.

비구니 스님이 속한 5조는 각자의 짧은 인사로 소회를 대신했다. 묘수스님은 “혼자 걸지만 함께 가는 길”이었다 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두가 가진 대업을 이루기 위한 천리길이 되길 서원하겠다”고 밝혔다. 4조 대표로 발표한 설암스님은 “서로가 힘든 순간마다 대중들이 서로 살피며 힘든 시간을 견뎌줄 수 있었다”며 “다만 다시 한번 순례 기회가 주어진다던 지방 곳곳에 있는 작은 사찰들

도 함께 걸음하는 시간들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길 위에서 먹고 자고 쉬는 노상 생활, 잠시 주어지는 휴식시간이라도 서로 잘 못한 언행을 참회하고 떠난 뒷자리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다시 돌아보자는 이야기도 나왔다. 2조 대표 설도스님은 “순례단이 떠난 자리가 수행자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다음에 기회가 오면 순례단 모두 뒷자리를 한번 더 살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단지 걷는 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

분하게 공양을 받아도 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많았다”며 “우리 스스로 그럴만한 자격이 있는지 계속해서 돌아보는 순간들이었다”고 했다.

걷고 또 걸으며 수많은 번뇌 망상이 스쳤을 순례단. 1조 조장 우봉스님은 “대부분의 스님들께겐 출가 초심을 다시 한번 갖게 해준 순례였다”며 “불자가 아닌 비불자, 국민에게도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걸었다”고 밝혔다.

울주=박봉영 이경민 기자

▶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 만난 사람들

“마음속으로 삼보에 대한 예경 올립니다”

■ 베트남 출신의 김나현 참가자

천리순례 참가자 가운데 유독 왜소하고 말없는 이가 눈에 띈다. 송광사 신도 김나현 씨다. 김나현 씨 본래 이름은 쭈응 티 핑리. 17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건너 왔다. 베트남 불자 모임에 나갔다가 지난해 우연히 송광사 법회에 참석하면서 열혈 신도가 됐고 매주 1~3회 자택이 있는 전주에서 순전 송광사까지 약 1시간을 달려 기도를 올리고 봉사를 하고 있다.

베트남에 있을 때부터 불교에 심취해 있었다는 김나현 씨는 이번 순례에 참가하기 위해 남편과 두 딸에게도 사전 동의를 구했다. 김나현 씨 간절한 모습에 가



김나현 참가자. 베트남 출신으로 남편과 두 딸의 허락을 받아 어렵게 19일 순례에 동참했다.

족 모두 순례를 응원했다고. 김나현 씨는 “방승에 나온 순례단을 보고 마음 속 깊이 감동을 받았다”며 “올해는 특히 송

광사에서 출발해 해인사 통도사를 두 발로 걸어서 참배한다는 것을 보고 꼭 참가하고 싶었다”고 했다.

처음 3일은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장시간 걷기 경험이 없는데다 개별 참가 신청으로 정보가 없어 다른 이들과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못하고 파스나 신발 등 사전 준비도 부족했다.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 같은 조에 있는 참가자들이 김나현 씨를 특별히 챙기면서 걱정은 많이 줄었다.

조만 걱정해 비해 순례 중반에 접어들어 지금, 김나현 씨는 매일 삼보에 귀의하고 예경하는 마음으로 걷는다고 했다. 김 씨는 “사찰에 갈 때마다 삼보전에 공양 올리는 마음”이라며 “특별히 바라는 것 없이 함께 걷고 있는 참가자 모두 건강히 순례를 마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혼자서는 못했을 일이죠”

■ 은사 상좌 정혜스님과 해인스님

고단하고 힘든 순례 기간 동안 홀몸 행기비뻔 외중에도 서로를 알뜰살뜰 보듬는 두 스님이 있었다. 이른 새벽 쏟아지는 잠에 눈을 비비면서도 혹시 빠트린 것은 없는지, 찬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지는 않는지, 화장실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은지, 매순간 서로의 매무새를 챙기며 찰떡같이 붙어있던 정혜스님과 해인스님이다.

두 사람은 은사와 상좌 사이다. 정혜스님의 적극적 권유로 해인스님도 지난해 단기 참가에 이어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 전 구간을 함께 걸었다. 세수 70세가 넘어가는 고령의 나이에도 정혜스님과 해인스님이 423km 전 구간을 함께 걸은



정혜스님과 해인스님은 은사와 상좌 사이다. 지난해 자비순례 단기 참가한데 이어 이번 천리순례에는 전 구간을 함께 걸었다.

건 새로운 포교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혜스님은 “세상을 자꾸 변해가는데 출가 수행자로서 바뀌어

가는 시대에 맞게 사람들을 이끌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출가 50년이 지났지만 자꾸 세상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도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건 정신적으로 너무 행복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 1250명 제자를 끌고 맨 몸으로 비를 맞고 벌레와 싸우며 걸으셨던 그 때를 회상하며 다시 행자 때로 돌아간 기분을 느꼈거든요. 걷는 내내 ‘아, 중노릇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순례는 끝이 났지만 인도에서 펼쳐질 순례를 생각하며 다시 또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겁니다. 상좌 없이, 전체 사부대중의 힘이 없었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일을 다시 기대하면서요.”

박봉영 이경민 기자
사진 김형주 기자 cooljoo@bulgya.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